

비평 언어의 변동*

: 문예지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단어의 변동 양상, 1995~2015

김병준**, 전봉관***, 이원재****

-
- I. 들어가며
 - II. 자료소개와 개념단어 선정
 - III. 데이터 분석 방법론
 - IV. 문예지 시기 구분에 따른 개념단어의 변동 양상
 - V. 개념단어를 매개로 한 비평가의 지형
 - VI. 결론 및 토론
-

I. 들어가며

문학의 사회적 배경을 다루는 연구들은 학제적 경계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학 자체를 사회의 반영으로 환원시킨다는 “사회학주의”의 혐의에 얽매이곤 했다.¹⁾ 하지만 우리 문학 평론이 루카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6037107).

**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제1저자

***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및 문화기술대학원, 제2저자

****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신저자

1) 정수복, 「뤼시앙 골드만의 문학 사회학의 불연속성」, 『현상과인식』 5(1), 1981, 128~159쪽.; 현택수, 「일반논문 골드만의 소설사회학을 위한 변명: 이해와 오해의 차이」,

치, 푸코, 부르디외를 주요한 이론적 전거로 활발히 인용해온 점을 본다
면²⁾, 소위 작가와 작품을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소위 구조주의적 접근이 “문학은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이며, 문학이 창작자와 독자 사이의 “특수한 상호관계” 혹은 “특수한 역사적 지평” 안에 놓여 있다는 점³⁾을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가이다.

루시앙 골드만의 구조주의는 이 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매우 일관적인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학 작품들은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벌어지는 근본 문제들을 바라보는 “세계관 (world views)”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세계관은 개별 인간 집단에 따라, 그리고 이들이 처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일관적이고 유의미한 구조란 매우 동적인 순간태 (dynamic virtuality)에 가깝다.⁴⁾

젊은 김현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것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모여든다는 류의 응고된 절대주의와, 모든 디테일에 같은 양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사건의 배후를 흐르고 있는 진실을 무시하는, 그래서 과거의 단순한 디테일의 나열로 파악하는 상대주의의 약점을 피해서”, 그는 역사 변동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전이되거나, 혹은 단절되는 장으로서의 사실형과 양식화 (stylisation)을 탐구한다.⁵⁾

『사회비평』 19, 1999, 214~232쪽; 이항직, 「정신사와 문학사회학: 백석의 시에 대한 정신사적 분석」, 『문화와 사회 17』, 2014, 73~117쪽.

2) 김현, 「논문 통제와 일탈 - 미셸푸코의 문학비평」, 『사회비평』 1, 1988, 204~223쪽.; 김현, 「푸코의 시대구분에 대하여-단절, 비연속, 연속에 대하여」, 『외국문학』 21, 1989, 37~51쪽.

3) 이항직, 앞의 글, 79~80쪽.

4) Goldmann, Lucien, "The Concept of the Significant Structure in the History of Culture.", *Essays on method in the sociology of literature*, St. Louis: Telos Press, 1980. pp.75~84.

세계관과 양식화를 파악하기 위해 골드만과 김현이 사용하는 일차 자료 또한 비슷하다. 김현의 일차 자료는 “우수한 작품”이고, 골드만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일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작들 (masterpieces)”이다.⁶⁾

문학평론가와 문학사회학자가 갈라지는 점은 일차 자료 이후의 작업 방식이다. 김현이 양식화의 단일 주체로서 계급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석은 철저히 텍스트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식화 경향을 찾아내는 것은 한국인의 근본적인 사상체계를 찾아내는 것과 근사한 일의 분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문제를 “현실의 양식화는 곧 문학의 양식화이며, 문학의 양식화는 곧 정신의 양식화라는 도식”을 통해 피해간다.

반면 골드만은 파스칼과 라신느의 작품들이 가지는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핵심을 발견하기 위한 더 좋은 방식으로 당시의 장세니즘 운동을 분석한다. 골드만이 이 방향을 택한 건 김현과 반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텍스트 분석만으로 구조적 관계 전체를 파악하려면 “초인적 지능 (superhuman intelligence)”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연구는 이 방법론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만약 복수의 역사적 시기들과 문학 집단들의 텍스트 전체를 읽고 기억하여 패턴을 밝힐 수 있는 초인적 (superhuman)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여기서 텍스트 전체는 경전화한 (canonized) 걸작뿐만 아니라 하나의 제도적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텍스트들을 가리킨다.

나아가 이들 역사적 시기들과 집단의 성격을 미리 이론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순수히 귀납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어떨까? 이는 사실상 골드만이 과학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여겼으나, 현실적인 한계 때문

5) 김현, 「韓國文學의 樣式化에 대한 考察」, 『창작과비평』 2(2), 1967, 246~75쪽.

6) 김현, 앞의 글, 1967, 249쪽; Goldmann, 앞의 글, 1980, 78쪽.

에 하지 못했던 대단히 적극적인 경험주의적 연구 방식이다.

우리는 최근 한국문학계에서 점차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인문학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최근 20여년간 한국의 평론 텍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시기적 분절과, 이 변화를 관통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평론(가)의 위계 구조를 검증할 것이다. 두 가지 분석 이전에 텍스트를 분석하는 전산적-통계적 기술을 비중있게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이 향후 비슷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의미있는 안내가 되길 바란다.

- 연구대상으로서의 문예지 평론

한국 근현대문학사에서 문예지는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일제강점기 『창조』, 『개벽』등의 동인지를 시작으로 문예지는 문단의 각 분파가 자신들의 이념적, 심미적 지향점을 드러내는 매체였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현대문학』, 『한국문학』등의 월간지가 각광을 받았고, 1970년대에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은 기존 월간지가 지배하던 문단 풍토를 혁파하고 문단을 이끌어갔다⁷⁾. ‘창비’⁸⁾와 ‘문지’가 문단을 주도하면서 문예지는 문단 내부의 매체에서 점차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는 공론장으로 그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는 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 수반된 정치경제적 변동과 관련이 있다. 문예지가 사회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비단 ‘운동’으로서의 문학을 주창했던 ‘창비’뿐만 아니라 그 대척점에 있었던 ‘문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7) 윤지관, 「공론의 장인가 권력인가-90년대 문학계간지들에 대한 단상」, 사회비평, 1999, 136쪽.

8) 창작과비평 출판사 혹은 분파를 가리킬때는 작은 따옴표로 ‘창비’, 문예지 『창작과비평』은 꺾쇠로 표기.

두 문예지는 1980년 폐간과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복간되는 과정을 겪었다. 민주화 이후 문예지는 1990년대 이십여 종의 문예지가 창간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뤘고, 『문학동네』 창간⁹⁾과 성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문예지 수가 늘어났을 뿐, 이를 읽는 독자들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90년대부터 논의된 ‘문학의 종언’이나 영상시대로의 이행 등과 맞물려 한국 사회에서의 문학과 문단의 영향력은 점차 줄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출판계가 상업주의의 강화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재편되면서 문예지는 더욱 그 힘을 잃고 있다. 예컨대 2015년, 40년 역사의 『세계의문학』 폐간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지는 여전히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단을 유지하는(작품 게재, 비평, 신인 등단, 출판, 문학상 수여)의 매개체로 여전히 존재한다.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는 2014년 『문학동네』 겨울 특집호가 매진되는 등의 사례는 아직 문예지가 문단과 문단 밖에서 그 힘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듯 문단의 매개체로서의 문예지의 주된 동력은 비평 텍스트에 있다. 시론(時論), 작가(품)론, 논문, 서평 등의 문학 비평 텍스트는 문단 내의 여러 논쟁을 유발하고, 특정 작가(작품)를 조명함으로써 각 문예지의 지향성에 어울리는 작가(작품)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편집위원 혹은 편집동인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3대 문예지(『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문학동네』)의 경우 문학 비평의 위상이 더 크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편집위원(동인)은 등단한 비평가들로 이뤄지고, 편집위원들이 작품을 게재하고 호명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¹⁰⁾. 1960~70년대 ‘창비’와 ‘문지’라는 문단의 두 흐름

9) 1994년 겨울호로 창간.

10) 김도연 외 4인, 「한국문단의 구조를 다시 생각한다.」 『문학동네』 2015년 가을호, 2015.9, 6쪽.

이 각각 백낙청과 김현으로 표상되는 이유는 바로 편집위원 시스템에 있다. 때문에 기존 문예지 형성과정 연구에서는 비평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편집위원(동인)들의 주된 역할을 중심으로 문학 담론 생성을 파악했다¹¹⁾. 하지만 기존의 비평 텍스트 중심의 문예지별 문학 담론과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 연구는 일제강점기나 1960~70년대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90년대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의 문예지의 비평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경우는 드물었다¹²⁾.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3대 문예지에 수록된 비평 텍스트 3,057편을 대상으로 지난 21년간의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와 시간의 따른 단어 변화 양상, 그리고 단어를 기반으로 한 비평가의 지형도를 분석한다. 인문학 주제에 정량적인 연구 방법을 동원하는 이른바 디지털 인문학이다. 디지털 인문학은 기존 인문학 연구처럼 문예지라는 소재를 다루지만, 정량적인 통계분석을 활용해 인문학적 의미를 찾는다. 디지털 인문학의 장점은 3천여 편의 비평 텍스트를 모두 일일이 읽어내지 않고, 주된 의미와 그 변화 양상을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현대문학 연구에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사례로 이재연의 연구가 있었다. 두 편의 논문¹³⁾에서 일제 강점기 잡지와 신문을 매개로 한

11) 김성환,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2010.4, 405~441쪽.

송은영, 「『문학과지성』의 초기 행보와 민족주의 비판」 『상허학보』, 43, 2015.02, 11~46쪽.

12) 90년대 문예지의 상황을 회고하는 연구나, 2000년대 문단 상황에 대한 대답과 최근 신경숙 표절 사태에 이은 ‘문학권력’ 논쟁으로 2010년대 문단 상황을 조망하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임영봉, 「한국문학의 제도성에 대한 비평의 성찰」, 『오늘의 문예비평』, 2005.6, 16~38쪽)

13) 이재연, 「작가, 매체, 네트워크-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시론」, 『사이間SAI』, 17, 2014, 257~301쪽.

이재연, 「키워드와 네트워크 : 토픽 모델링으로 본 『개벽』의 주제 지도 분석」, 『상허학보』, 46, 2016.02, 277~334쪽

소설가의 지형도를 사회 연결망 분석으로 거시적으로 조망하거나, 잡지 『개벽』의 키워드를 토픽 모델링(LDA)을 통해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황호덕¹⁴⁾은 20여 년의 현대문학 논문에서 초록 키워드와 참고문헌, 피인용 외국저자 등을 모두 확인하여 시간 순으로 초록 키워드와 인용 외국저자의 변화상을 확인했다. 한편 소설 텍스트를 직접 정량적으로 분석한 사례도 있었다. 문한별, 김일환¹⁵⁾은 김남천 소설의 대표 작품 17편을 포함하는 코퍼스를 구성해 TF-IDF 가중치로 각 작품별 키워드를 추출해 김남천 소설의 변모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렇듯 이제까지 문예지 비평 언어에 관한 연구가 문단을 이끌던 주요 비평가와 동인들의 텍스트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21년간 3대 문예지에서 비평 텍스트를 게재한 비평가 756명이 만들어 내는 비평 언어의 평균적인 모습에 주목한다. 또한 문예지별, 시기별 구분을 통해 비평 언어의 변동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념단어의 사용 양상에 따른 비평가의 지형도를 분석해 비평가의 사회적 지위와 비평 언어 개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II. 자료소개와 개념단어 선정

1. 자료소개

『창작과비평』, 『문학동네』, 『문학과사회』를 본 연구의 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3대 문예지가 한국 문단과 지성계를 대표하며 지난 21년간 문

14) 황호덕, 「외부로부터의 격발들, 고유한 연구의 지정학에 대하여」, 『상허학보』, 35, 2012.06, 53~115쪽.

15) 문한별, 김일환, 「김남천 소설의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2011.12, 377~402쪽.

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 매체이기 때문이다¹⁶⁾.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3대 문예지에 게재된 비평 텍스트(시론, 작가론, 작품론, 서평, 논문 등 문학 관련 비평) 3,057편을 대상으로 했다. 1995년을 기점으로 잡은 이유는 1994년 겨울에 『문학동네』가 창간 되었으며 다른 두 문예지와 같은 광의의 문학 비평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 정신분석학, 문화비평, 영화비평 텍스트도 포함했다. 3대 문예지에 실린 비평 텍스트를 대부분 포함했지만, 다만 『창작과비평』의 경우 정치, 경제 등의 명백히 사회과학적인 성격의 텍스트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21년간 3대 문예지에서 비평을 1회 이상 게재한 비평가는 총 756명이었다.

DBpia와 교보 스콜라에서 다운 받은 비평 텍스트 원문(PDF)를 텍스트 파일(TXT)로 모두 변환했고, 하나의 파일에 복수의 저자가 있을 경우 텍스트 파일을 둘 이상으로 나눠 분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저자가 ‘편집부’로 명시되었거나, 아예 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비평가-개념단어 행렬에서 제외하였지만, 문예지-개념단어 행렬에 포함했다.

모든 비평 텍스트 파일에서 Mecab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 명사만 추출하였다. 이때 비평에서 자주 쓰이는 ‘복합명사’를 고려해 형태소 추출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복합명사란 ‘민족문학’, ‘포스트모더니즘’처럼 복수의 명사가 합쳐서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Mecab 형태소 분석기에 있는 기본 사전에는 이러한 복합명사 형태의 개념단어가 따로 정리돼 있지 않다. 만약 따로 복합명사 형태를 사용자 사전에 추가하지 않으면, 형태소 분석기는 텍스트에 ‘민족문학’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민족’, ‘문학’으로 두 개의 명사로 인식한다. 때문에 주요 복합명사를 Mecab 사용자 사전에 추가해 형태소 추출 과정에서 복합명사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16) 방재석, 「문예지에 대한 문학 작가의 인식과 정책적 대안」, 『문화정책논총』, 2012.08, 9~30쪽.

2. 개념단어 선정

기존 인문학 연구에서 ‘개념’ 혹은 ‘개념어’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테면 문학사에서 ‘근대’라는 개념과 개념어를 둘러싼 연구들은 현대문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줄기를 이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평 텍스트에 등장하는 개념에 함의한 시대별 맥락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다만 정량적으로 그려내는 개념단어들의 평균적인 사용양상에 집중하였다. 이는 미셸 푸코식의 담론 연구 및 이와 관련해 단어의 출현 빈도와 용법을 계량화 하는 어휘통계학(lexicom trie)¹⁷⁾과 유사하다. 다만 단순히 출현 빈도수가 단어의 개념을 보장해주지 못하기에, 뒤에서 설명할 TF-IDF 가중치와 코사인 유사도, 주성분 분석(PCA) 등을 활용하여 좀더 풍부한 맥락이 있는 개념단어가 되도록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개념단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념단어 : 비평 텍스트의 수사적인 특징과 비평에서 활용하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관념을 포함하는 단어(문인들의 인명(人名)이나 기타 일반명사 포함).

개념단어를 추출하기 앞서 필요 없는 단어를 제거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컴퓨터 공학이나 정보학에서는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불용어(stopwords) 리스트를 활용해서 의미 없는 정보를 제거한다. 영어에서 관사, 대명사, 연결부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본 연구에서는 1) 비평 PDF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용 단어(‘제목’, ‘출처’, ‘디비피아’, ‘교보 스킨라’)를 우선 제거하였다.

2) 문예지에서 자주 쓰이는 섹션 제목이나 출판사(문예지) 이름 등을

17)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011, 15쪽.

제거하였다(‘문학과지성사’, ‘창비’, ‘특집’, ‘리뷰’ 등).

3) ‘비평가의 수사적 특징을 설명할 수 없는 일반적인 인문사회과학적 용어’를 제거하였다. 예컨대 ‘소설’, ‘시’, ‘문학’, ‘평론’, ‘비평집’, ‘화자’, ‘논의’, ‘문장’ 등은 비평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지만 특정 비평가의 수사적 특징을 설명하기 어려운 중립적인 단어들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연구자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도록, 불용 단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III. 데이터 분석 방법론

1. TF-IDF 가중치

본 연구에서 사용될 500개의 주요 개념단어군은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¹⁸⁾ 가중치에 근거해 추출하였다. TF-IDF 가중치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¹⁹⁾ 단순히 단어 빈도수(Term Frequency)로 키워드를 도출할 경우 문서 내에서 단순 빈도수는 적지만, 그 문서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배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비평 텍스트에서 ‘세계’²⁰⁾는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때문에 ‘세계’라는 개념단어를 보고 특정 비평 텍스트의 특이성(unique) 도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

18) TF-IDF 가중치는 정보학에서 키워드를 도출할 때 자주 쓰이는 방법론으로 최근 연구에는 소설 텍스트 주제어 추출 연구에도 쓰이고 있다.(유은순, 최건희, 김승훈, 「TF-IDF와 소설 텍스트의 구조를 이용한 주제어 추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 2015.2, 121~129쪽.)

19) <https://ko.wikipedia.org/wiki/TF-IDF>

20) 불용어를 제외하고 단순 빈도수(TF)가 가장 많은 단어였다.

한 방법론이 TF-IDF 가중치이다. 즉 문서에서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와 많은 문서에 공통되는 출현 빈도 양쪽의 특징을 통합한 평가기준이다. 어떤 문서의 특정 단어가 해당 문서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TF-IDF는 단어 빈도(TF)와 역문서 빈도(IDF)의 곱으로 도출한다. 역문서 빈도는 전체 문서 수를 해당 단어를 포함한 문서의 수로 나눈 값에 로그를 취해 얻는다. 이 공식을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총 문서수는 3000개라고 가정)

	TF (문서1)	TF (문서2)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서수	IDF	TFIDF (문서1)	TFIDF (문서2)
근대성	1	6	1,000	0.4771	0.4771	2.8627
자의식	4	2	1,500	0.3010	1.2041	0.6021

〈표 1〉 TF, TF-IDF 가중치 비교 예시

위 사례는 단순히 ‘근대성’과 ‘자의식’이라는 두 단어의 경우를 들어 설명했지만, 거의 모든 비평에 등장하는 ‘세계’라는 단어의 경우 총 문서 수를 ‘세계’가 포함된 문서의 수로 나눌 때 거의 1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 값을 로그 함수에 대입하면 IDF값이 0에 가까워진다. 이를 통해 매우 자주 사용되어 비평가나 문예지의 개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반적인 단어들을 걸러내는 효과를 얻는다.

$$w_{ij} = tf_{ij} \times \log \left(\frac{N}{df_i} \right)$$

tf_{ij} = j에 있는 i의 수
 df_i = i를 포함한 문서의 수
 N = 전체 문서수

〈그림 1〉 TF-IDF 공식

본 연구에서는 총 3,057개의 비평문서를 대상으로 TF-IDF 상위 500개의 개념단어군을 추출하였다. 이때 상술한 불용어를 제거한 상태에서 TF-IDF 추출과정을 진행하였다. 단순 빈도수를 고려한 추출과정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성 있는 개념단어를 추출할 수 있었다.

2.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는 두 대상 사이 각도의 코사인 값을 활용하여 측정된 대상들의 유사한 정도를 뜻한다²¹⁾. 유사도는 거리(distance)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코사인 유사도는 정보 검색 분야에서 문서, 단어, 텍스트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데 많이 쓰인다. 이를테면 신문의 논조 차이를 분석하거나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²²⁾. 코사인 유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벡터(Vector)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벡터란 방향과 크기를 모두 포함하는 수학적 표현 도구²³⁾이다.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다양하게 활용되는 벡터의 성격을 규정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벡터의 정의는 ‘여러 개의 숫자를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것’이다. 행렬(Matrix) 형태로 비평 텍스트 문서와 추출한 상위 500개 개념단어군을 묶어 사용할 것이다.²⁴⁾

21) https://ko.wikipedia.org/wiki/코사인_유사도

22) 감미아, 송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신문에 따른 내용 및 논조 차이점 분석」, 『지능정보연구』, 18.3, 2012.9, 53~77쪽.

23) <https://ko.wikipedia.org/wiki/벡터>

24) 아래 나오는 코사인 유사도 도출 과정에서 표기값은 실제 값이 아닌 예시이다.

	세계	자신	사람	존재	민족문화
문서 1	1.2423	0.9877	1.4431	0.9872	3.224	
문서 2	0.9221	0.4231	2.332	4.2133	0	
문서 3	
....	
문서 3057	0.4422	0.5346	2.421	0.5637	0	

〈표 2〉 문서-개념단어 행렬 예시

TF-IDF 가중치를 통해 도출한 500개의 개념단어군과 21년간의 3대 문예지 비평 텍스트 3,057편을 하나의 행렬(3057 x 500)로 표현하였다. 행렬의 원소에는 각 문서에 개념단어의 TF-IDF 가중치 값을 벡터 형태로 표기하였다. 이 상태에서 각 문서를 연도별 문서군으로 합쳐서 행렬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문서1부터 문서 20까지가 1995년 문예지 비평 텍스트라면 각각의 원소를 합해 1995년 문서군을 만들었다.

	세계	자신	사람	존재	민족문화
1995년 문서군	21.4223	4.2433	14.3222	1.2344	5.2231
1996년 문서군	10.4222	5.4322	5.3331	6.2211	15.2311
....
2015년 문서군	32.4242	1.2342	2.3331	0.9977	2.1123

〈표 3〉 연도별 문서군 - 개념단어 행렬 예시

위 행렬에 전치행렬(Transposed Matrix)을 곱해 연도-연도 행렬을 도출한다.

여기서 두 문서군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는 각 문서의 벡터를 서로 곱해 더한 값을 각 문서의 벡터를 제곱해 더한 값에 루트를 씌운 값을 서로 곱한 값으로 나눈다. 공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similarity} = \cos(\theta) = \frac{A \cdot B}{\|A\| \|B\|} = \frac{\sum_{i=1}^n A_i \times B_i}{\sqrt{\sum_{i=1}^n (A_i)^2} \times \sqrt{\sum_{i=1}^n (B_i)^2}}$$

〈그림 2〉 코사인 유사도 공식

위 공식을 통해 나온 결과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1이 나온다면 두 문서의 벡터와 완전히 일치함을 뜻하며, 0은 서로 독립적인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두 문서의 유사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 행렬에서 1995년 문서군과 1996년 문서군의 유사도는 0.91이며 이는 1995년 문서군과 2015년 문서군의 유사도 0.77보다 높다. 따라서 1995년에 나온 비평 문서들은 500개의 개념단어군 쓰임 측면에서 2015년 문서군보다 1996년 문서군과 좀 더 유사하다.

	1995년 문서군	1996년 문서군	...	2015년 문서군
1995년 문서군	1	0.91	0.88	0.77
1996년 문서군	0.91	1	0.93	0.79
....
2015년 문서군	0.75	0.88	0.98	1

〈표 4〉 연도별 문서군-문서군 대각 행렬 예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1년간 비평 텍스트 유사도 행렬(21 x 21)을 2차원 그래프에 시각화하였다. x축과 y축이 모두 같은 연도일 경우 일치하므로 행렬의 주대각선은 모두 1이다. 좌상단부터 우하단까지 대각선으로 짙은 초록색선은 같은 연도의 유사도를 비교하므로 모두 같다.

3. 주성분 분석(PCA)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환원시키는 기법²⁵⁾이다. 여기서 차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선형대수 등의 수학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에서 다뤘던 문서-단어 행렬 데이터로 차원을 간단히 설명해보려 한다. 3,057편의 비평 텍스트는 개념단어군으로 뽑은 500개의 단어를 원소로 갖는다. 어떤 문서는 500개의 단어를 모두 포함(원소값에 0이 없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서는 500개중에 일부의 단어만 포함 할 것이다. 각 문서 입장에서는 개별의 단어가 하나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차원이란 개념은 문서에 위치한 단어들의 위치이다. 각 문서는 단어를 갖고 그 단어의 원소 값에 따라 다른 위치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500개의 단어가 하나의 문서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차원의 단어도 있으며, 덜 중요한 차원의 단어도 있다. 주성분 분석(PCA)은 이렇게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치환함으로써 어떤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주성분을 추출한다.

앞에서 코사인 유사도와 TF-IDF 가중치를 활용해 주요한 개념단어군을 도출했지만, 이는 시기별, 문예지별 평균적인 개념단어군이였다. 따라서 좀 더 미시적인 비평가와 개념단어 지형을 살펴보려면 주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는 문서-단어 행렬이며, 다만 TF-IDF 가중치를 행렬 원소로 쓰지 않고 단어 빈도수를 원소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추출한 상위 500개의 단어군은 그대로 같다.

앞 단계에서 문예지별-시기별로 단계 분석을 했던 것처럼 주성분 분석도 문예지와 세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다만 지난 21년간 문예지에 한번이라도 비평을 게재한 비평가가 756명이었고 이 모든 사

25) https://ko.wikipedia.org/wiki/주성분_분석

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았다²⁶⁾. 왜냐하면 문예지에 일정 횟수 이상 꾸준히 비평을 게재한 비평가가 유효하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한두 번의 게재 데이터로 비평가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기는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다. 또한 주성분 분석 과정에서 ‘표준화(Scaling)’ 과정을 거쳤다. 비평가들이 21년 혹은 각 시기(1~3)에 게재하는 비평 텍스트의 분량과 횟수는 서로 천차만별이다. 특히 3대 문예지 편집위원들은 편집위원이 아닌 비평가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많은 비평 텍스트 게재수를 보여준다. 때문에 개념단어 사용 횟수도 편집위원이 월등히 많다. 따라서 일정 횟수 이상의 비평 텍스트 게재 경험이 있는 비평가들의 개념단어 사용 양상을 표준화함으로써 편집위원이라는 특이값을 줄여 비평가들의 개념단어 사용양상의 간극을 줄였다. 이렇게 간극을 줄였음에도 개념단어 사용양상에 특이사항이 발견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IV. 문예지 시기 구분에 따른 개념단어의 변동 양상

1. 3대 문예지 전체²⁷⁾

아래 도표에서 녹색에 가까울수록 코사인 유사도(1.0)가 높아지고, 적색에 가까울수록 유사도(0.5)가 낮아진다. 진한 녹색을 서로 유사한 군집이라고 생각하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1년은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나뉜다(괄호 안에 표기된 숫자는 각 시기에 속한 코사인 유사도

26) 비평가 지형도 포함 조건

3대 문예지-전체 시기 지형도 : 21년간 5회 이상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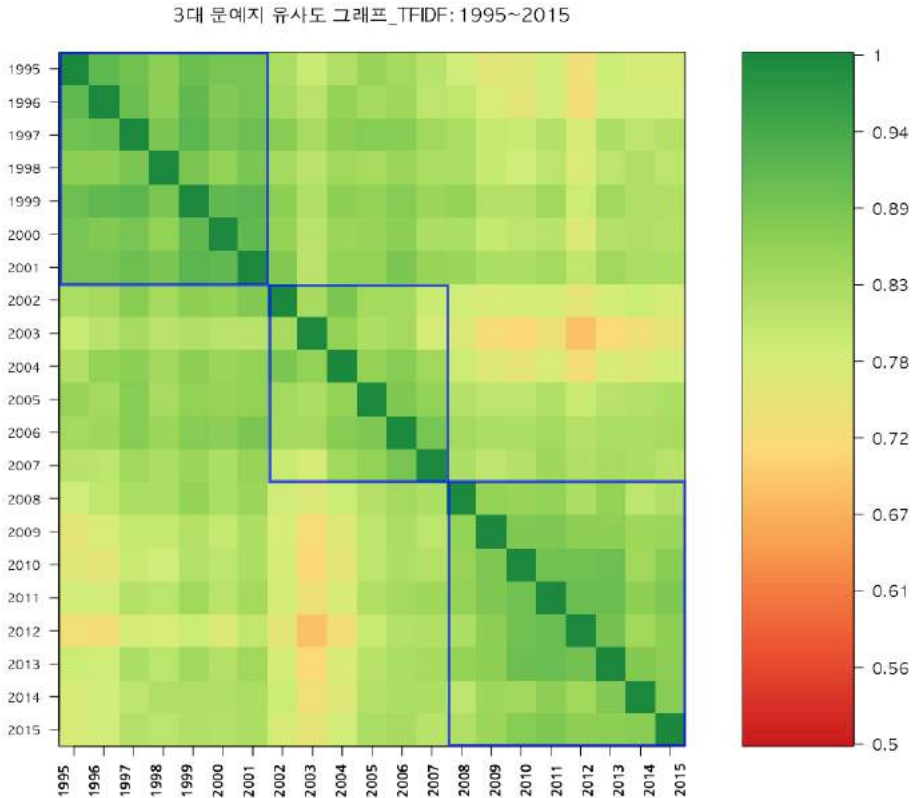
3대 문예지 각 시기별 지형도 : 각 시기1,2,3 동안 4회 이상 게재

문예지별 전체 시기 지형도 : 21년간 4회 이상 게재

문예지별 각 시기 지형도 : 각 시기1,2,3에 문예지별로 2회 이상 게재

27) 3대 문예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한 개념단어가 데이터의 대상이다.

평균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그림 3〉 3대 문예지 연도별 코사인 유사도 그래프

시기1: 1995~2001년(0.91) / 시기2: 2002~2007년(0.88) / 시기3: 2008~2015년(0.89)

21년간의 코사인 유사도 평균이 0.84이고 위 시기에 평균을 웃도는 유사도를 보이면서 군집을 이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 대선이 있었던 해²⁸⁾(2002, 2007년) 전후를 중심으로 비평 텍스트가 군집

28) 98년에도(97년 12월 대선 다음해) 옅은 녹색으로 유사도가 감소하는 변곡점이 보였

(Cluster)을 이룬다는 점이다. 급격하게 유사도가 감소하는 붉은 변곡점(結節點, transition periods)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비평 언어의 변동이 함께 이뤄진다는 것이다²⁹⁾.

우선 21년간 3대 문예지에서 TF-IDF 가중치가 높은 30개 단어를 도출했다. 또한 각 시기에서 앞에서 도출한 500개의 개념단어 중 TF-IDF 가중치 기준 상위 개념단어 100개씩을 뽑아 서로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 시기 모두 중복되는 단어를 제외하고 비교를 진행했다(볼드체는 연구자가 표기). 예컨대 각 시기의 ‘개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 ‘민족’은 세 시기에 모두 등장한 단어이므로 제외하였다. 그리고 단어 왼쪽에 병기한 숫자는 TF-IDF 가중치 순위를 뜻한다.

3대 문예지 전체 시기 상위 30개 단어					
1	영화	11	한국	21	당신
2	사랑	12	인물	22	나무
3	아버지	13	욕망	23	현실
4	언어	14	어머니	24	남자
5	여성	15	주체	25	엄마
6	죽음	16	시간	26	가족
7	문화	17	사회	27	정치
8	여자	18	아이	28	타자
9	역사	19	근대	29	인간
10	서사	20	기억	30	이미지

〈표 5〉 3대 문예지 전체시기 상위 30개 단어

으나 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응집도가 더 높아 무시하였다.

29) 179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대통령 담화문 어휘 변화(lexical shifts) 양상 연구에서도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하여 변곡점을 찾아내었다. (Rule, Alix, Jean-Philippe Cointet, and Peter S. Bearman, "Lexical shifts, substantive changes, and continuity in State of the Union discourse, 1790-2014."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2,35 (2015): 10837-10844.)

3대 문예지 전체 시기 TF-IDF 가중치 상위 30개 단어들은 문학 비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철학적 개념들(‘언어’, ‘역사’, ‘욕망’, ‘주체’, ‘시간’ 등)이거나 작품의 소재가 되는 것들(‘아버지’, ‘어머니’, ‘가족’, ‘기억’ 등)이다. 이 단어들은 문예지나 비평가들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는 90년대부터 한국문학 비평이 주목한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 시기 모두 중복되는 단어역시 위 사례와 비슷하게 21년간 비평 텍스트에서 가장 즐겨 쓰는 단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3대 문예지 시기 1~3 중복 단어(세 시기 모두 중복, 가나다 순 ³⁰⁾)							
1	가족	11	선생	21	역사	31	주체
2	근대	12	세계	22	영화	32	죽음
3	기억	13	세상	23	욕망	33	풍경
4	나무	14	시간	24	이미지	34	한국
5	남자	15	시대	25	인간	35	현실
6	리얼리즘	16	아버지	26	인물	36	환상
7	사랑	17	어머니	27	일상		
8	사물	18	아이	28	자연		
9	사회	19	언어	29	정치		
10	서사	20	여자	30	존재		

〈표 6〉 3대 문예지 시기 1~3 모두 중복 단어 정리

코사인 유사도에 따른 세 시기의 분절 양상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의 단어 개수가 모두 다른 것은 상위 100개 단어 중에 세 시기에서 두 시기 이상 중복되는 단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각 시기 중복 단어의 많고 적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³¹⁾.

30) 각 시기의 단어별 가중치가 다르므로 가나다순 정렬.

31) 각 문예지-시기별로 상위 단어를 도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각 시기의 상위 단어 개수가 다르다.

3대 문예지 시기1 (1995~2001)				3대 문예지 시기2 (2002~2007)				3대 문예지 시기3 (2008~2015)			
1	글쓰기	22	남편	1	국가	22	게임	1	엄마	22	연애
2	영혼	23	내면	2	김훈	23	김연수	2	당신	23	기록
3	민족문학	24	하늘	3	만화	24	구멍	3	소년	24	소녀
4	정신	25	가치	4	남성	25	성석제	4	윤리	25	그림자
5	철학	26	문체	5	조선	26	이데올로기	5	슬픔	26	청춘
6	고향	27	신경숙	6	미국	27	정체성	6	타인	27	혁명
7	운동	28	과학	7	전쟁			7	감정	28	편지
8	웃음	29	반성	8	중국			8	불안	29	공감
9	모더니즘	30	운명	9	상상력			9	순간	30	눈물
10	생명	31	절망	10	민족주의			10	얼굴	31	친구
11	논리			11	아내			11	목소리	32	바깥
12	김현			12	감독			12	질문	33	행위
13	전통			13	어린이			13	사유	34	가능
14	윤대녕			14	국민			14	반복	35	경험
15	인식			15	여행			15	미래	36	인생
16	자기			16	음악			16	공동체	37	우울
17	이념			17	분석			17	권여선	38	침묵
18	현대			18	개인			18	김수영	39	세계문학
19	거울			19	사막			19	실패	40	사과
20	추억			20	시장			20	단어	41	서울
21	변화			21	소통			21	사람		

〈표 7〉 3대 문예지 각 시기별 상위 단어

추출된 단어를 기반으로 각 시기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시기 1의 테마는 〈세계화와 후일담 문학〉이다. 90년대 문민정부 등장과 공산권 붕괴로 후일담 문학이 등장했다. ‘창비’의 민족문학과 ‘문지’의 순수문학이라는 대표적인 두 흐름은 IMF와 세계화로 그 존재가 의문시되었고 세계화 시대의 민족문학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논의가 있었다. 이 상태에서 윤대녕과 신경숙은 과거(80년대 학생 운동 등)를 추억하며 90년대

문학의 큰 부분을 이뤘다.

시기 2의 테마는 <동아시아 민족문화와 서브컬처>이다. 2000년대부터 번역된 ‘근대성’이라는 문제를 국내에 제한하지 않고, 동아시아라는 국제적인 범위로 풀어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또한 게임, 만화 등의 ‘서브컬처’ 혹은 ‘장르 문학’에 대한 관심도 늘었던 시기였다.

시기 3의 테마는 <내밀한 감정을 드러내는 문학>이다. 비평에서의 윤리, 타자성, 감정을 중요시하는 문학과 비평이 중심이 되었다. 게다가 중복되는 단어를 제외하고도 41개 단어가 추출되어 다른 시기보다 좀 더 풍부한 비평 주제가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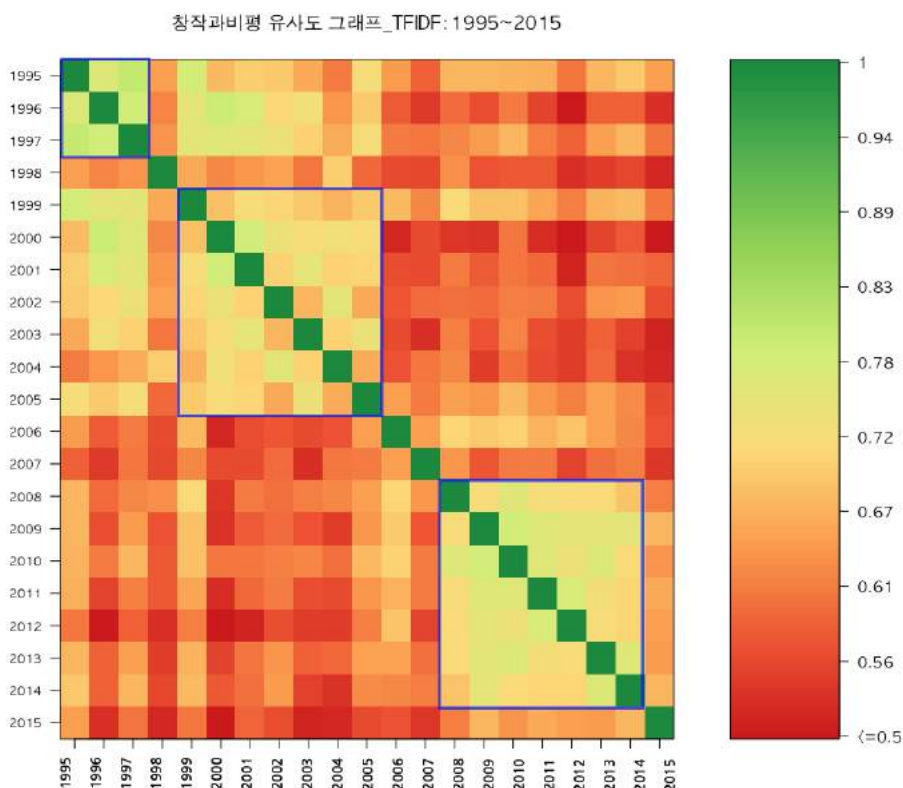
2. 『창작과비평』

각 문예지의 코사인 유사도와 주요 개념단어를 살펴보려한다. 각 문예지의 유사도 그래프는 전체 문예지 유사도 그래프와 달리 분명한 변곡점(붉은색)이 보인다. 그리고 각 문서끼리의 유사도도 3대 문예지 평균보다 낮다. 특히 『창작과비평』의 전체 시기 유사도 평균은 0.66으로 전체 문예지 평균(0.84)보다 낮은 것은 물론, 『문학동네』(0.75)와 『문학과사회』(0.69)보다도 낮다. 이는 『창작과비평』이 연구에서 개념단어군을 공유함에도 두 문예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도별 비평 텍스트의 개성이 뚜렷함을 뜻한다.

『창작과비평』의 변곡점은 98년과 2006~2007년이다³²⁾. 97년 12월 대선과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동기와 개념단어와 변동 시기가 일치한다. 다른 두 문예지와 비교했을 때 『창작과비평』

32) 앞에서 3대 문예지 전체의 시기 구분과 『창작과비평』 시기 구분이 다른 이유는 각 문예지별로 연도별 비평 텍스트 문서군의 유사도 비교를 통한 시기 구분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는 뒤에 다룰 『문학동네』와 『문학과사회』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 매우 선명한 변곡점을 갖는다. 기존에 가장 ‘이념’적인 문학을 추구한다는 ‘창비’의 지향점에 부합하는 결과다. 다만 2002년 12월에 치러진 16대 대선이 변곡점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즉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기2 군집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걸쳐 있다. 다른 두 문예지가 16대 대선 주변인 2002~2003년에 군집이 나뉘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특이한 사실이다.



〈그림 4〉『창작과비평』연도별 코사인 유사도 그래프

시기1: 1995~1997년(0.86) / 시기2: 1999~2005년(0.75) / 시기3: 2008~2014년(0.78)

『창작과비평』 전체 시기 상위 30개 단어					
1	영화	11	근대	21	음악
2	여성	12	역사	22	민족문학
3	리얼리즘	13	아버지	23	시간
4	일본	14	죽음	24	모더니즘
5	사랑	15	서사	25	미국
6	한국	16	인물	26	민족
7	만화	17	정치	27	감독
8	언어	18	가족	28	현실
9	중국	19	아이	29	타자
10	문화	20	기억	30	예술

〈표 8〉 『창작과비평』 전체 시기 상위 단어

전체시기 『창작과비평』의 상위 30개 단어는 ‘창비’의 이념적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리얼리즘’, ‘근대’, ‘민족문학’, ‘모더니즘’, ‘민족’ 등 ‘창비’가 천착했던 ‘민족문학론’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중국’, ‘미국’ 등의 단어에서 ‘창비’ 세계화 시대의 민족문학이 나아갈 길을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창작과비평』은 97년 외환위기 이후(첫 번째 변곡점) 자신들이 천착했던 민족문학론이 과연 세계화 시대에 유효한지 계속 고민해왔다. 이를테면 1998년에 게재된 일련의 비평 텍스트는³³⁾ 1998년이 변곡점이 된 근거가 된다.

33) 임규찬, 「세계사적 전환기에 민족문학론은 유효한가」, 『창작과비평』, 1998년 여름호.
최원식, 「세계체제의 바깥은 없다」, 같은 책.
강명구, 「분단체제와 근대 극복을 위한 선구적 노력」, 『창작과비평』, 1998년 가을호.
김명인, 「리얼리즘 · 모더니즘, 민족문학 · 민족문학론」, 『창작과비평』, 1998년 겨울호.

『창작과비평』 시기1 (1995~1997)				『창작과비평』 시기2 (1999~2005)				『창작과비평』 시기3 (2008~2014)			
1	소리	17	정신	1	만화	17	여행	1	타자	17	슬픔
2	번역	18	가슴	2	미국	18	환상	2	죽음	18	청춘
3	통일	19	현대	3	드라마	19	고향	3	엄마	19	감정
4	동화	20	시대	4	대중			4	윤리	20	풍경
5	전통	21	전문	5	음악			5	장르	21	세상
6	문제	22	마음	6	선생			6	주체	22	사유
7	문명	23	활동	7	기억			7	타인	23	순간
8	분단			8	남자			8	세계문학	24	육망
9	서구			9	게임			9	서정	25	감각
10	세대			10	시장			10	세계	26	인간
11	눈물			11	바다			11	당신	27	사물
12	북한			12	세기			12	미학	28	질문
13	과학			13	전쟁			13	시선	29	우울
14	해방			14	이미지			14	폭력	30	권역선
15	부분			15	남성			15	소년	31	얼굴
16	자본주의			16	하늘			16	고통		

〈표 9〉 『창작과비평』 각 시기별 상위 단어

분명 『창작과비평』은 시기1에서 3까지 거치면서 민족문화론을 고수 해왔다. 왜냐하면 위 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거된 중복 단어들(‘리얼리즘’, ‘모더니즘’, ‘민족문학’, ‘민족’, ‘근대’, ‘민중’ 등)은 민족문화론을 이루는 주요한 개념단어군이다. 다만 1998년을 중심으로 시기1과 시기2로 나뉘는 건 시기2를 이루는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1998년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일본문화 개방을 시작한 원년이다. 1998년 10월 영화를 시작으로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4차 전면개방까지 일본문화가 유입되었다. 이는 시기2에서 ‘만화’, ‘대중’, ‘게임’, ‘음악’ 등이 중요 단어로 출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문화 개방은 단순히 일본과의 문화적 교류만

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세계화와 더불어 문화적 세계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1999년 『창작과비평』에서 〈근대극복의 언어를 찾아서〉³⁴⁾라는 특집을 마련하며 세계화와 식민성 극복과 근대문학을 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백낙청은 이 특집에서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를 진지하게 살피는 일은 매우 긴급하고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소통됨직한 담론을 개발할 필요가 절실하다”³⁵⁾ 말한다. 백낙청의 표현처럼 『창작과비평』은 정치경제적 변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시기2에서 시기3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은 2006-07년으로 지선과 대선에 있는 해였다. 참여정부 말기,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했고 이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진보’ 정권이 끝나고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출범했다. 두 번째 변곡점인 2006-07년에는 ‘창비’의 민족문화론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2006-07년에 그 이전에는 상위에 있지 않던 개념단어가 주요 단어로 등장한다. ‘번역’과 ‘세계문학’이다. 시기3에서 주요 개념단어인 ‘세계문학’이 등장한 맥락도 이와 관련 있다. 이 시기에 『창작과비평』에 게재된 비평 텍스트³⁶⁾는

34) 백낙청,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창작과비평』, 1999년 가을호.

한기옥, 「지구화시대의 세계문학」, 같은 책.

이연숙, 「일본어에의 절망」, 같은 책.

유중하, 「하나에서 둘로- 김수영 그 이후」.

35) 백낙청,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창작과비평』, 7쪽, 1999년 가을호.

36) 황현산, 「완전소중 시코쿠-번역의 관점에서 본 황병승의 시」, 『창작과비평』, 2006년 봄호.

신승엽, 「흔들리는 민족문학」, 『창작과비평』, 2006년 여름호.

백낙청, 「외계인 만나기와 지금 이곳의 삶」, 『창작과비평』, 2007년 여름호.

유재건, 「국민국가를 넘어 세계공화국으로?」, 『창작과비평』, 2007년 가을호.

번역된 문학인 세계문학의 확장과 더불어 민족문학론을 재고하거나 더 나아가 2006년 국내에 번역된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 문학의 종언』이 불러온 ‘종언론’, 마지막으로 황병승 시인을 비롯한 ‘미래파’ 논쟁까지 다루고 있다. 2007년 겨울호 〈한국문학, 세계와 소통하는 길〉 특집³⁷⁾은 ‘창비’의 대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2007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되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절정에 이른 세계금융위기에 부응하듯 『창작과비평』은 격렬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아래 인용된 서평가 이현우의 결론이 시기3으로의 이행을 이해하는 좋은 단서가 될 것이다.

“민족/국민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입장 차이는 ‘민족’으로도 ‘국민’으로도 번역되는 ‘네이션’(nation)의 이해를 둘러싼 견해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션의 이러한 이중성은 사실 민족이란 말 자체에도 적용되는 게 아닐까.

(중략)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통공간으로서의 더 많은 사막, 더 많은 번역공간이다. 그러한 공간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로 ‘세계문학을 위한 초국적인 운동’이 아닐까.³⁸⁾“

2. 『문학동네』

『문학동네』의 전체 시기 유사도 평균은 0.75로 세 문예지 중에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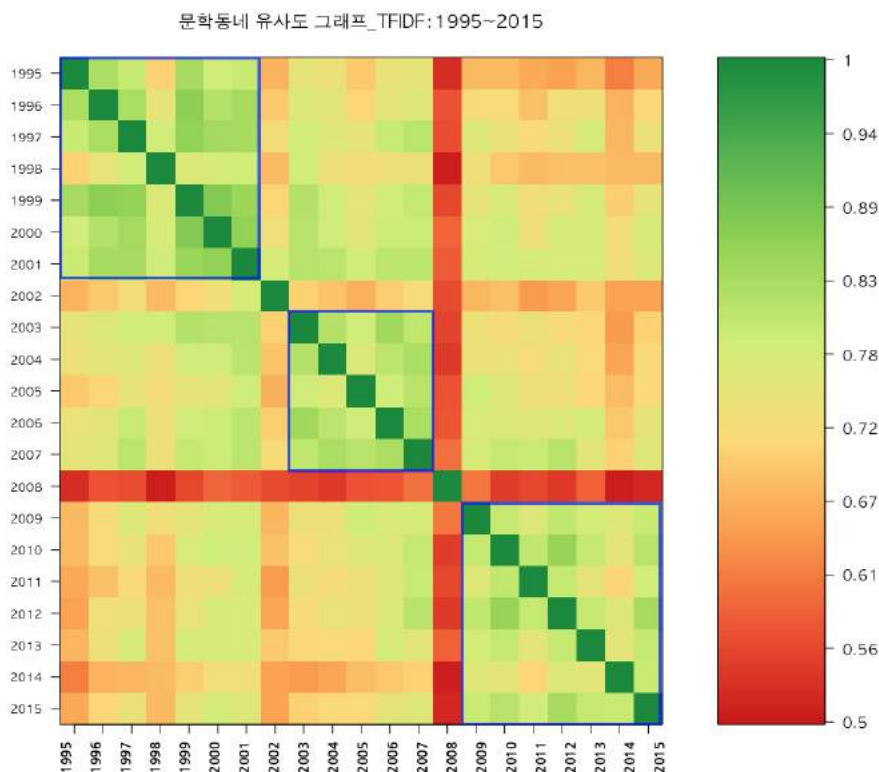
김석범, 「왜 일본語문학이냐」, 『창작과비평』, 2007년 겨울호.

- 37) 이현우, 「세계문학 수용에 관한 몇가지 단상」, 『창작과비평』, 2007년 겨울호.
정홍수, 「세계문학의 지평에서 생각하는 한국문학의 보편성」, 『창작과비평』, 2007년 겨울호.

정여울, 「해석을 넘어 창조와 횡단을 꿈꾸다」, 『창작과비평』, 2007년 겨울호.

- 38) 이현우, 「세계문학 수용에 관한 몇가지 단상」, 『창작과비평』, 96쪽.

높다. 이는 세 문예지 중에 21년간 가장 개성이 적은 텍스트가 분포하며, 변곡점도 짧음을 뜻한다.



변곡점은 2002년과 2008년이다. 1998년도 다소 유사도가 감소(열은 녹색)가 보였으나 2002년과 2008년에 비해 그 폭이 작아 변곡점으로 여기지 않았다. 『문학동네』 역시 대통령 선거가 분수령이 됐다. 다만 『창작과비평』과 달리 『문학동네』와 후에 설명 할 『문학과사회』는 2002년

16대 대선이 변곡점이 된다³⁹⁾).

『문학동네』 전체 시기 상위 30개 단어					
1	아버지	11	남자	21	엄마
2	사랑	12	인물	22	주체
3	죽음	13	나무	23	영화
4	문화	14	아이	24	시간
5	여자	15	역사	25	노래
6	선생	16	욕망	26	가족
7	여성	17	신화	27	한국
8	어머니	18	당신	28	인간
9	언어	19	사회	29	현실
10	서사	20	이미지	30	도시

〈표 10〉 『문학동네』 전체시기 상위 단어

『문학동네』는 창간사에서 ‘특정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학’⁴⁰⁾을 추구함을 밝혔다. ‘창비’, ‘문지’로 대표하는 한국 문단의 이념 흐름에서 자유롭고, 보편적인 문학을 추구함을 뜻한다. 위 『문학동네』 전체 시기 상위 단어에서는 문학 비평에서 ‘단골’로 등장해 비평가나 문예지만의 가치를 드러내기 힘든 ‘사랑’, ‘언어’, ‘서사’, ‘인물’ 등의 단어가 포진되었다. 더불어 80년대 거대 담론, 리얼리즘 문학에서 벗어나 신경숙과 윤대녕이 대표하는 ‘문학동네’스러운 개인의 내면과 실존을 강조하는 개념단어가 있다. 이를테면 ‘아버지’, ‘어머니’, ‘엄마’,

39) 『문학동네』는 2002년, 『문학과사회』는 2003년으로 두 문예지의 변곡점은 일치하지는 않으나 2002년 12월 대선을 전후로 변곡점이 이룬다는 점은 동일하다.

40) “그런 의미에서 『문학동네』는 어떤 새로운 문학적 이념이나 논리를 표방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대신 현존하는 여러 갈래의 문학적 입장들 사이의 소통을 촉진 하고, 특정한 이념에 구애됨이 없이 문학의 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문학동네 편집부, 「계간 『문학동네』를 창간하며」, 『문학동네』, 1994 겨울호, 2~5쪽)

‘가족’으로 표상되는 개인에 집중하는 작은 서사라든가, ‘욕망’, ‘이미지’, ‘주체’, ‘인간’, ‘도시’ 등은 실존을 나타내는 개념단어다.

『문학동네』 시기1 (1995~2001)				『문학동네』 시기2 (2003~2007)				『문학동네』 시기3 (2009~2015)			
1	선생	14	예술	1	국가	14	문명	1	당신	14	순간
2	신화	15	프랑스	2	민족	15	만화	2	엄마	15	연애
3	번역	16	바다	3	김훈	16	상상	3	소년	16	사건
4	글쓰기	17	웃음	4	영화	17	가난	4	시간	17	문학상
5	현실	18	상처	5	구멍	18	자아	5	언니	18	얼굴
6	비판	19	성석제	6	조선	19	이데올로기	6	목소리	19	진실
7	그대	20	이론	7	근대			7	감정	20	의자
8	환상	21	광주	8	남성			8	슬픔	21	실패
9	윤대녕	22	영혼	9	전쟁			9	고통	22	질문
10	일상	23	정신	10	자본주의			10	친구	23	공동체
11	철학			11	정치			11	감각	24	복수
12	자연			12	아내			12	과거	25	편지
13	소리			13	중국			13	윤리		

〈표 11〉 『문학동네』 시기별 상위 단어

문예지 『문학동네』를 포함한 출판사 ‘문학동네’는 한국 문단에서 적극적으로 외국문학을 소개해온 곳이다. 1994년 겨울호를 창간하며 ‘창비’, ‘문지’와는 비교했을 때 매우 짧은 역사임에도 급속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문학, 외국문학이라는 구분없이 다양한 작품을 소개해왔기 때문이다. 시기1에서 ‘번역’, ‘프랑스’, ‘신화⁴¹⁾’ 등 외국문학과 관련된 개념단어들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또한 대표적인 ‘문동 작가’인 윤대녕과 성석제가 단어군에 포함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1차 변곡점인 2002년⁴²⁾을 거치면서 『문학동네』의 개념단어군이 크

41) 서구 신화와 이어진 외국 문학.

42) 2002년 변곡점은 2차 변곡점인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유사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은 아니다. 때문에 2002년에 도출된 주요 개념단어군도 시기1과 비교했을 때 주목

게 바뀐다. ‘국가’, ‘민족’, ‘조선’, ‘근대’, ‘자본주의’, ‘정치’, ‘이데올로기’ 등 이념적인 개념단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해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광장’의 기억을 갖고 있다. 광장의 기억과 더불어 연말에 있을 대선, 그리고 노사모라는 강력한 정치적 변동이 있던 시기이다. 이런 배경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때 『문학동네』는 ‘민족담론’ 혹은 ‘민족문학 담론’을 주된 소재로 다룬다⁴³⁾. 특히 2006년 봄호에서 〈문학 정전과 이데올로기화〉라는 특집을 편성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2006년 겨울호에서 〈길 위의 인생- 이동, 탈출, 유목〉 특집을 마련해 한국소설의 ‘국경’과 내셔널리즘을 다루기도 하였다. 시기2에서 두 번째 특징은 소설가 ‘김훈’이다. 시기 2, 5년간 김훈은 『문학동네』에서 총 8회 호명(비평 대상이 됨)되었다. 이는 그 기간에 호명된 다른 작가들과 호명횟수를 비교했을 때 단연 가장 많은 기록이다⁴⁴⁾.

2차 변곡점인 2008년은 유사도가 급격히 감소해 붉은 색으로 표기돼 있다. 2008년 주요 개념단어⁴⁵⁾는 ‘정체성’, ‘정치’, ‘국가’이다. 서영채

할 만한 특징이 없기에 설명하지 않는다.

43) 류보선, 「민족이야기의 해체와 역사의 소멸」, 『문학동네』, 2003년 가을호.

류보선, 「즐거운 디스토피아 새로운 역사지리지」, 『문학동네』, 2003년 겨울호.

정선태, 「동아시아 담론, 배반과 상처의 기억을 넘어서」, 『문학동네』, 2004년 여름호.

황중연, 「민주화 이후의 정치와 문학-고은 만인보의 민중-민족주의 비판」, 『문학동네』, 2004년 겨울호.

황호덕, 「아카이브 밖으로 - 문학, 국가, 비밀, ‘국민문학’ 비판론들에 부쳐」, 『문학동네』, 2005년 가을호.

한수영, 「교과서 문학 정전화의 이데올로기와 탈정전화」, 『문학동네』, 2006년 봄호.

황호덕, 「넘은 것이 아니다 - 국경과 문학」, 『문학동네』, 2006년 겨울호.

서동진, 「마르크스적이라기보다는 흡스적인.....」, 『문학동네』, 2007년 가을호.

44) 김애란(5회), 김영하(5회), 박민규(5회), 백가흠(6회).

45) 같은 방식으로 2008년 TF-IDF 상위 개념단어군을 뽑아 시기1, 시기2 상위 단어군과 중복되는 단어를 제외하는 방식을 택했다.

는 2007년 12월 대선이 끝나고 바로 나온 2008년 봄호 <민주화 이후의 문학과 문화> 특집, 「공생의 윤리와 문학: 민주화 이후의 한국문학」라는 글에서 87년 체제로부터 지난 20년간의 문학과 정치를 논했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 네이션, 국가라는 삼각동맹”⁴⁶⁾에서 벗어난 문학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같은 호, 같은 특집에서 류보선은 17대 대선의 정권교체를 “60, 70년대 국가독점 자본주의적 명령의 출몰⁴⁷⁾”로 보았다. 요컨대 시기2에서 강화된 이념적인 개념단어군은 2008년을 기점으로 다시 수그러든다. 보수 정권의 등장과 2008년 4월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대승 그리고 4월부 중순부터 시작된 광우병 촛불시위와 좌절이라는 정치적인 변동은 시기3을 소환한다.

시기3의 테마는 ‘내밀한 감정과 타자의 윤리’이다. 흥미롭게도 세 문예지 모두 시기 3에서 이와 흡사한 주제의식을 공유한다. ‘당신’, ‘목소리’, ‘윤리’, ‘감정’, ‘슬픔’, ‘고통’ 등이 대표적인 개념단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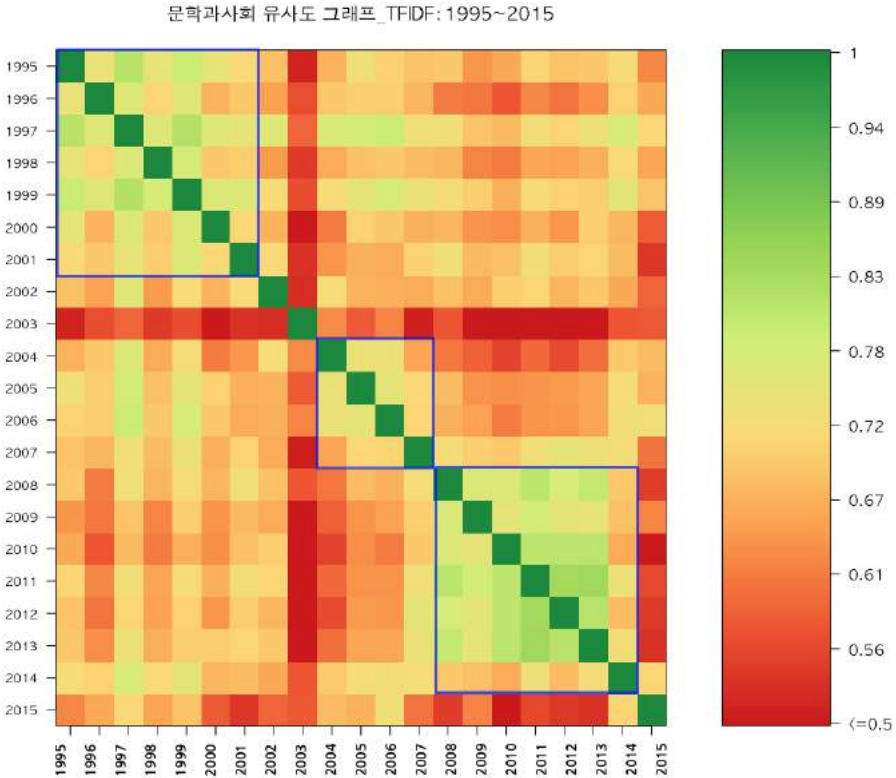
3. 『문학과사회』

『문학과사회』의 전체 시기 유사도 평균은 0.69로 『창작과비평』보다는 높지만 『문학동네』 보다는 낮다. 시기별 유사도는 다음과 같다.

시기1과 시기2를 나누는 변곡점은 2002~2003년이다. 『문학과사회』 역시 2002년 12월 16대 대선 전후가 변곡점이 되었다. 다만 다른 두 문예지처럼 17대 대선이 있는 2007년 전후에 뚜렷한 변곡점은 없다. 하지만 다른 문예지와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시기3으로 군집되어 시기2(2004~2007년)와 구분점을 이룬다.

46) 서영채, 「공생의 윤리와 문학: 민주화 이후의 한국문학」, 『문학동네』, 2008년 봄호.

47) 류보선, 「우리 시대의 비극-김영하 소설을 통해 본 민주화 이후의 한국문학」, 『문학동네』, 2008년 봄호.



〈그림 6〉 『문학과사회』 연도별 코사인 유사도 그래프

시기1: 1995~2001년(0.78) / 시기2: 2004~2007년(0.79) / 시기3: 2008~2014년(0.80)

전체 시기 상위 30개 단어는 『문학과사회』와 ‘문지’의 이념적 지향점을 드러낸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창비’의 대척점에 있었던 ‘문지’의 주된 지향점인 ‘순수 문학’을 이 개념단어로 온전히 살펴볼 수는 없다. 하지만 『창작과비평』의 전체 시기 상위단어(‘리얼리즘’, ‘모더니즘’, ‘중국’, ‘일본’)와는 다른 개념단어군임은 분명하다.

『문학과사회』 전체 시기 상위 30개 단어					
1	영화	11	당신	21	고통
2	사랑	12	여성	22	서사
3	언어	13	욕망	23	이미지
4	아버지	14	시간	24	현실
5	문화	15	세대	25	어머니
6	죽음	16	인물	26	정치
7	한국	17	주체	27	아이
8	역사	18	기억	28	근대
9	사회	19	엄마	29	대중
10	여자	20	나무	30	인간

〈표 12〉 『문학과사회』 전체 시기 상위 단어

『문학과사회』 시기1 (1995~2001)				『문학과사회』 시기2 (2004~2007)				『문학과사회』 시기3 (2008~2014)			
1	예술	15	거울	1	조선	15	사막	1	엄마	15	순간
2	김현	16	과학	2	우찬제	16	김애란	2	당신	16	사과
3	공간	17	철학	3	여성	17	분석	3	소년	17	눈물
4	풍경			4	폭력	18	형식	4	불안	18	타인
5	글쓰기			5	장르	19	시선	5	노래	19	단어
6	웃음			6	번역	20	근대문학	6	슬픔	20	바다
7	일상			7	일본			7	가족	21	감정
8	영혼			8	김숨			8	도시	22	반복
9	의식			9	개념			9	세계	23	상처
10	가상			10	선생			10	그림자	24	진실
11	문체			11	상상력			11	얼굴	25	사람
12	자아			12	비판			12	마음	26	혁명
13	연애			13	성석제			13	사물	27	실패
14	세상			14	타자			14	윤리		

〈표 13〉 『문학과사회』 시기별 상위 단어

시기 1에서 ‘예술’, ‘김현’, ‘글쓰기’, ‘문체’, ‘철학’ 등의 개념단어를 통해 비평에서 작품의 예술적인 측면 혹은 아름다움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여름호에서 김현 사후 10주기를 기념하며 4.19 세대와 김현 비평을 재평가 하는 등의 특집을 마련한다⁴⁸⁾.

시기1에서 시기2로 넘어가는 2002~2003년에 변곡점이 있다. 이 시기 『창작과비평』과 『문학동네』에서 민족문학, 근대성, 세계문학 등으로 문예지를 통한 논쟁이 있을 때, 『문학과사회』도 그 영향을 받는다. 변곡점 주요 상위단어에 ‘민족’, ‘민족주의’, ‘국가’, ‘중국’, ‘북한’, ‘국민’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 이는 시기1,2,3과 전체시기에 상위단어로 도출되지 못한 개념단어군이다. 16대 대선 전후에 『문학과사회』가 민족문학 논쟁에 ‘참전’했던 것이다⁴⁹⁾. 하지만 그 참전은 오래가지 않아 끝이 난다. 시기2에서 변곡점에 등장했던 개념단어들이 등장하지 않고, 다시 비 이념적인 비평 개념단어가 주류를 이룬다. 앞의 두 문예지가 시기2에서 이념적인 비평 단어들이 주류를 이뤘던 것과 달리 『문학과사회』는 변곡점에서 ‘민족주의’ 등의 이념이 중요하게 다뤄지다가 끝내 군집이 생기지는 못했다. 그리고 시기 3에서 모든 문예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인간(타자)의 내면을 다루거나 혹은 윤리적인 비평 언어가 등장한다.

V. 개념단어를 매개로 한 비평가의 지형

앞에서 TF-IDF 가중치를 활용한 500개의 개념단어를 기반으로 연도별 문서군의 코사인 유사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각 문예지가 선거라는

48) 권성우, 「4.19 세대 비평의 성과와 한계」, 『문학과사회』, 2000년 여름호.

김동식, 「4.19 세대 비평의 유형학」, 앞의 책.

장경렬, 「김현, 그 ‘부재하는 현존, 현존하는 부재」, 앞의 책.

정과리, 「김현 비평의 현재성」,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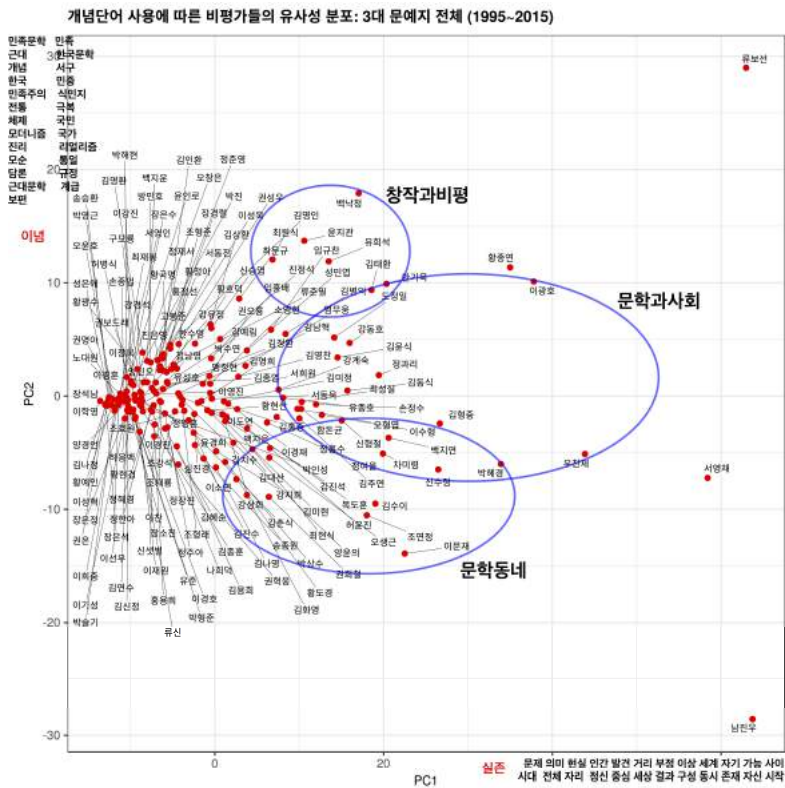
49) 이종은, 「민족과 국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문학과사회』, 2003년 여름호.

송상일, 「국가주의와 문학의 갈등」, 앞의 책.

최성실, 「국가주의라는 괴물과 성 정치학」, 앞의 책.

정치적 변동기가 전환점을 이뤄 시기별 문예지 비평 텍스트의 군집을 이루는 것을 확인했다. 거시적으로 비평 텍스트의 시기 구분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도출된 시기 구분에 따라 주성분 분석(PCA)을 활용해 비평가들이 사용한 개념단어를 기반으로 미시적인 비평가의 지형도를 그려 분석한다. 비평가들은 비평을 쓸 당시의 시대적 담론에 대응하며, 이는 개념단어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3대 문예지 전체 시기 지형도



〈그림 7〉 3대 문예지 전체시기 비평가 지형도

위 도표에서 PC는 Principal component(주성분)로 주성분1과 주성분2로 나뉜다. 500개의 개념단어군을 PC1과 PC2라는 두 축으로 나누고 각각의 축에 주성분 값을 부여한다. 위 도표에서는 PC1에 ‘실존’, PC2에 ‘이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두 축의 이름은 연구자가 도출된 주성분을 보고 명명한 것이다. 상위 PC1, PC2의 성분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기에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1과 PC2의 중복 개념단어를 제거하고 각 축의 상위 25개 개념단어를 추출하였다.

각 축은 음수와 양수로 이어지는데, 비평가는 두 축에서 갖는 값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진다. 예컨대 PC1,2에서 높은 값을 갖는 개념단어(위 도표에서는 PC1의 ‘사이’, PC2의 ‘민족문학’)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느냐에 따라 비평가의 좌표가 결정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성분 분석에서 음수와 양수를 두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각 축에서 해석에 사용될 양수방향 혹은 음수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PC1,2에 속한 단어들의 주성분 ‘절대값’을 보고 결정한다. 위 도표에서 류보선은 ‘이념(PC2)’이라는 축과 ‘실존(PC1)’이라는 축 모두에서 (양수방향으로) 높은 값을 갖고 있다. 가로축과 세로축에서 높은 값을 갖기에 우상단 끝에 위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류보선은 PC1의 상위 단어들(세계~시작)과 PC2의 상위단어들(사이~시대)을 많이 썼다고 할 수 있다⁵⁰⁾.

주성분 분석의 장점은 이렇게 대조되는 두 축을 중심으로 요소들(비평가)의 좌표를 통해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한 류보선과 ‘문학동네’에서 함께 편집위원 생활을 했던 남진우의 위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류보선과 남진우는 PC1(실존) 축에서는 모

50) 음수 방향으로 절대값이 높다면 반대로 류보선은 우하단 끝에 위치할 것이다. 도표에서 PC1,2 성분이 0이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음수, 양수 방향으로 개념단어를 두었다. 양수 방향에 개념단어가 위치하면 그 축은 양수방향을 해석에 활용한다.

두 높은 값을 가져 도표 오른쪽 끝에 위치한다. 하지만 PC2(이념) 축에 서는 그 차이를 드러낸다. 이념적인 개념단어를 자주 사용한 류보선과 비교했을 때 남진우는 이념적인 단어를 매우 적게 사용했기에 세로축에서 큰 차이가 났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쓰인 두 사람의 비평 텍스트를 비교하면 두 사람의 개념단어 사용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볼드체는 연구자가 표기).

(류보선) 평등하게 호명하는 듯하지만, 그 평등해 보이는 호명은 단지 **자본주의적** 문명 혹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할 뿐이다. **자본주의**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본주의**에 필요한 인재가 되라고 친절하게 권유하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자본주의적 체제** 안에서 안정되게 살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많은 존재들을 그야말로 냉정하게 **체제** 밖으로 내몬다. 부르지만 앉았던들 자기만의 고유성을 지니고 살아갈 존재 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훼손시켜놓고는 간단하게 내치는 셈이다. 이들이 고통, 절망, 분노, 복수심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 것이다. 결국 이들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강제적으로 불러 나와 내치지며 결국은 **모더니티**의 그늘, 혹은 폐허 속에서 **사회**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괴물이 되어간다.⁵¹⁾

(남진우) 아니 그가 죽은 후에도 ‘나’의 **환상** 속에서 **아버지**는 계속 달리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의 달리기는 청년기의 육체적 욕구 충족을 위한 일회적 행동을 넘어서 있다. 즉 이 달리기의 실질적 주관자는 **아버지** 자신이라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달리기에 의해 탄생한 자식인 ‘나’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아버지**를 끝없이 달리게 만드는 것일까. 왜 ‘나’는 달리는 **아버지**의 **환상**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이는 **아버지**의 달리가 ‘나’에겐 곧 자기 **존재**의 기원이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그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무모한 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며, 역으로 ‘나’가 자신의 **존재**의 기원에 관심을 갖는 한

51) 류보선, 「침묵하는 주체, 말하는 시체」, 『문학동네』 2005년 겨울호, 8쪽.

달리는 아버지

대한 환상은 중단될 수 없는 것이다.⁵²⁾

두 비평가가 PC1,2에서 도출한 상위 개념단어를 실제 텍스트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경우와 반대로 도표 좌측에 군집을 이루고 있는 비평가 집단이 있다. 실존-이념이라는 두 축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비평가들이다. 이들이 좌표(0,0)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이유는 개념단어 사용에 있어 뚜렷한 개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로축에서 상단으로 갈수록 이념적인 성향이 짙은 비평가이고, 가로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존적인 측면이 강한 비평가라고 할 때 그 두 측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⁵³⁾.

류보선과 남진우가 위치한 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각 문예지 편집위원으로 개성 있는 비평언어를 구사해온 비평가들이 위치한다(우찬제, 황종연, 이광호, 박혜경 등). 거기서 좀더 왼쪽으로 가면 각 문예지 편집위원들이 군집을 이룬다. 각 문예지의 편집위원이 정확하게 모여있는 것은 아니나 대략 비슷한 위치에서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백낙청을 비롯한 『창작과비평』 편집위원들의 위치는 그간 ‘창비’가 추구한 민족, 민중문학론에 부합한다. 세로 이념축(PC2)에서 상단으로 갈수록 이념적인 성향의 개념단어를 사용함을 참고할 때 세 문예지 편집위원 군집 중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군집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학동네』 편집위원 군집의 경우 『문학과사회』 편집위원 군

52) 남진우, 「원초적 장면의 변용으로서의 소설 - 김애란 소설의 밑그림」, 『문학동네』 2007년 여름호, 6쪽.

53) 다만 여기서 이런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념적인 개념단어 사용이 잦은 비평가가 과연 이념적인 주제에 천착하는 비평가인가? 오히려 민족문학을 비판적으로 보는 비평가는 아닌가? 일리있는 지적이다. 본 연구는 오직 명사만을 활용하여 명사에 따라 붙는 동사나 형용사를 고려하지 못했다. 즉 민족문학(이념)에 반대하는 비평가가 이념적인 개념단어를 자주 언급했다면 이 비평가는 민족문학을 옹호하는 비평가가 아니라 이 주제에 관심이 높은 비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집아래 위치하지만(신형철, 차미령, 권희철, 이문재), 비평 언어 사용의 개성이 뚜렷한 류보선, 서영채, 남진우가 군집 바깥에 있다. 즉 나머지 두 문예지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편집위원 군집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문학동네’의 창간사처럼 ‘창비’와 ‘문지’라는 문단의 두 이념사이에서 특정한 노선을 택하지 않고 넓은 스펙트럼을 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비평가의 사회적 지위와 비평 언어의 개성도

2015년 여름 신경숙의 표절 스캔들로 2000년대 초반 이뤄진 1차 ‘문학 권력’ 논쟁 이후 2차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문단의 많은 비평가들은 편집위원 시스템과 등단(신인상), 문학상 등 작품 선별 과정에서의 비평 권력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서 정작 외면받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했다. 바로 젊은 소장 비평가들이었다. 이들은 문단의 편집위원과 문단 밖에서 편집위원을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문학 권력을 비판하든, 부정하든 문학장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사오십대 중진 비평가들이며 한국 문학이 ‘끝장났다’는 선고할 수 있는 권한도 그들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것이다⁵⁴⁾. 소설가나 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평가들은 대부분 대학원에 얽여져 있고 선배 비평가가 사제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사제관계를 통해 젊은 비평가들이 문단에 진출하고, 그 관계 유지를 통해 비평을 문예지에 신는다. ‘주니어 시스템’은 겉으로는 젊은 비평가들에게 문단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유연한 배제장치로 작용한다⁵⁵⁾. 김대성의 지적처럼 젊은 비평가에게

54) 김대성, 「한국문학의 ‘주니어 시스템’을 넘어」, 『창작과비평』, 2015년 가을호, 340쪽.

55) 앞의 글, 342쪽.

주어진 길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때까지, 즉 “조로(早老)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추방당하는 길”밖에 없다⁵⁶⁾.

앞에서 개념단어를 매개로 21년간 나름의 비평 텍스트를 게재한 비평가 전체의 지형(개성도)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편집위원⁵⁷⁾, 등단경력, 나이 등 사회적 지위에 따른 비평가들의 개성도를 확인한다. 통념상 문단에서 새로운 의견과 개성있는 담론을 이끌어야 할 젊은 비평가들이 오히려 사오십대 비평가들의 비해 개성없는 비평 언어를 구사한다면 이는 비평가의 사회적 지위가 비평 언어의 개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성은 각 시기에 일정 기준이상 비평 텍스트를 게재한 비평가들의 개념단어 사용 양상으로 정의된다. 예컨대 개념단어를 두 축으로 나눠 비평가들이 각 주제축에 얼마나 천착하고 집중했는지 확인하여 개성도를 측정한다.

(1) 시기별 분석

〈그림 8〉에서 1995년에서 2001년 사이 등단한 젊은 비평가들을 따로 표기했다. 이 중 등단 후 이 시기에 편집위원을 역임한 사람들을 별표로 표기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삼각형으로 표기했다. 신수정, 김동식, 서동욱, 손정수, 김형중은 시기 1에서 등단하고 편집위원을 역임한 그 당시 젊은 비평가들(별표)이다. 그리고 김미현 유성호 홍용희, 손종업, 류신은 시기 1에서 등단하고 편집위원을 역임하지 못한 사람들(삼각형)이다.

56) 앞의 글, 344쪽.

57) 편집위원 역임 여부는 3대 문예지 이외에 다른 문예지 편집위원 경력을 포함했다. 또한 시기별 분석에서 해당 시기(시기 1~3)내에 편집위원을 역임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 각 시기 편집위원 경력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했다. 다만 정확히 편집위원을 어느 시기에 역임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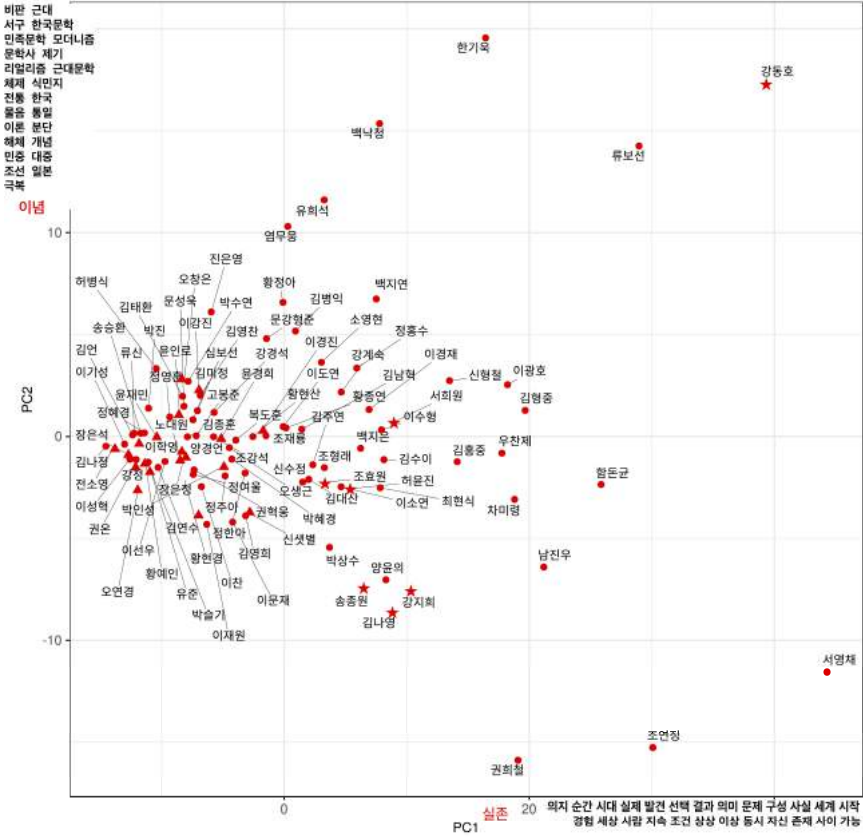
[illegible]

〈그림 9〉에서도 〈그림 8〉과 마찬가지로 별과 삼각형으로 젊은 비평가들을 표기했다. 정여울, 복도훈, 신형철, 김미정, 허윤진, 강유정, 조강석은 그 당시 등단하고 편집위원을 역임 중(별표)이었고, 차미령, 이수형, 강계숙, 조영정, 소영현 등은 그 시기 등단 후 편집위원을 역임하지 못했다⁵⁸⁾. 시기 1과 시기 2에서는 편집위원을 역임했던 역임하지 않았든 젊은 비평가들이 중심으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모여있다.

비평 언어의 변동 89

〈그림 10〉에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등단해 편집위원을 역임한 비평가(조효원, 송종원, 김나영, 강지희, 이소연, 서희원, 강동호)와 이 시기에 등단하고 편집위원을 역임하지 못한 젊은 비평가(장은석, 전소영, 권운, 박인성, 장은정, 오연경, 황예인, 황현경, 박슬기, 신샛별, 이학영, 노대원, 양경언, 윤재민, 윤인로, 이강진, 문성욱, 윤경희, 이정희)를 표기하였다. 시기 1~2에서보다 시기 3에서 젊은 비평가들이 편집위원 역임 여부를 두고 좀더 분명히 분화된 모습을 보인다.

개념단어 사용에 따른 비평가들의 유사성 분포: 3대 문예지 전체 (2008~2015)



〈그림 10〉 3대 문예지 시기 3(2008~2015) 비평가 지형도

즉 〈그림 10〉에서처럼 비교적 젊은 비평가들 중에서 편집 위원 여부가 좀 더 개성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 시기 1과 시기 2(〈그림 8~9〉)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이것이 시기 3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일 경우이다. 이 경우 문단에서의 지위가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다는 주장이 일반성을 갖기 어렵다. 둘째, 젊은 비평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연령대에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보다 일반적인 메커니즘일 경우이다. 이 경우엔 젊은 비평가라는 기준만으로는 그림을 통해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림 자체는 분석적 검증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따라서 이 권력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 모델을 설정하고, 측정하였다.

종속변수 - 개념에 사용에 있어서의 개성: 주요인 분석 그림은 첫 번째, 두 번째 주요인들을 축으로 해당 개념단어들의 사용 정도에 따라 비평가들을 배치한 것이다. 각 그림들은 하나의 중심점⁵⁹⁾을 가지는데, 이 중심점에 가까울수록 이차원 공간에서 가장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이 중심점에서 멀수록 두 축을 특징짓는 개념단어 사용에 적극적이면서 다른 비평가들에 비해 개성이 강한 개념단어 사용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각 주요인 분석 공간에서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개념단어 사용에 대한 비평가의 “개성”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종속변수 삼았다.

독립변수 - 연령, 편집위원직의 수: 본 연구는 비평가의 연령과 문예지 편집위원 여부가 문단 내의 지위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요인들 중 하나로 보았다. 여기서 연령은 등단년도와 출생년도 정보를 합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둘 사이의 상관성이 높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회귀식에 포함시키기 위해 둘을 더하여 하나의 변수로 만들고 이를 “연령”이라 이름 붙였다.⁶⁰⁾

편집위원직의 수는 해당 기간에 비평가가 가지고 있는 편집위원 직함

59) 비평가 지형도에서 두 개의 축(PC1, PC2)의 중력(Gravity) 중심점. 단순히 (0,0)이 중심이 아님.

60) 등단연수와 나이 사이의 상관도는 93%였다. 둘을 따로 회귀식에 포함시킬 경우, 공선성(collinearity)라는 통계기술적 문제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면서 두 개의 정보를 다 이용하기 위해 둘을 더하여 “연령” 변수를 만들었다.

의 수이다. 우리 자료에 따르면 한 시기 동안 많게는 3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비평가도 있었다.

통제변수 - 비평가 고정 효과: 특정 비평가의 개성은 비평가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역사-사회관, 문체, 관심 분야 등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평가 개인의 특성이 실재 주요인 공간상이 개성을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평가 개인의 불변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정 효과를 통제하였다.⁶¹⁾

모델과 결과: 이상의 독립변수들로 개별 비평가들의 개성을 예측하는 모델로 일반 선형모형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였다. 보통선형모형 (Ordinary Linear Model)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종속변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오른쪽으로 많이 치켰기 때문이다.⁶²⁾

표 14는 비평가의 개성을 예측하는 일반 회귀 모형 검증 결과이다. 각 시기별 ((1), (2), (3)), 그리고 세 시기를 합친 경우 ((4), (5)) 모두에서 연령과 편집위원직 수는 개성의 정도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99% 수준에서 유의미). 예를 들어 시기 3 (모형 (3))에서는 비평가의 등단연수와 나이 등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개성의 정도가 약 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9 = \exp(0.009)$). 한편 편집위원직이 한 개 늘어날 때 마다 개성의 정도가 늘어날 확률은 66% 증가하였다

61) 고정효과 (Fixed Effects)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논문 참조.(이원재, 김병준, 전봉관, “작가-비평가 관계와 비평가의 구조적 위치가 소설 단행본 판매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 : 2010-2015.” 한국현대문학연구, 48 (2016. 4): 541~543쪽)

62) 정규분포가 아니라 푸아송 분포를 가정하는 일반선형 모델을 측정하였다.(Agresti, Alan, and Barbara Finlay. 1997. *Statistical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66 = $\exp(0.509)$).

시기를 합치고, 비평가 개인의 시간불변적 (time-constant)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편집위원직의 효과는 매우 뚜렷하였다. 모형 (4)에 비해서는 그 양이 많이 줄었는데, 이는 비평가의 개인적 특성들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함과 동시에, 모형 (5)가 이를 성공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점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를 통제했음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편집위원직의 효과는 매우 믿을만하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모형 (5)에 따르면 편집위원 직함이 하나 늘어날 때 마다 비평가의 개성이 늘어날 확률은 32% ($1.32 = \exp(0.278)$) 씩 증가한다.

	(1)	(2)	(3)	(4)	(5)
시기	1995-2001	2002-2007	2008-2015	1995-2015	1995-2015
연령 (등단연도; 출생연도)	0.005*** (0.000)	0.006*** (0.000)	0.009*** (0.000)	0.024*** (0.000)	
편집위원직 수	0.722*** (0.003)	0.399*** (0.014)	0.509*** (0.006)	0.751*** (0.003)	0.278*** (0.013)
절편	17.231*** (0.182)	17.304*** (0.738)	22.533*** (0.438)	54.191*** (0.125)	4.925*** (0.075)
사례수	63	42	97	202	202
비평가 고정 효과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 $p < 0.001$, ** $p < 0.01$, * $p < 0.05$

〈표 14〉 주요인(Principle Component) 공간에서의 개성을 예측하는 일반 선형 회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통념상 젊은 소장 비평가가 중진 비평가보다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그들은 젊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전복을 시도해도 잃을 것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젊은 비평가들은 편집위원이 되지 않는 한 대부분 기존 비평 언어(개념단어)를

답습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이러한 통념에 위배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소장 비평가들이 문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비평 언어가 이미 필터링(Pre-filtering)되었거나, 비평가 스스로 기존 문단 내부 비평 질서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즉 젊고 패기있는 비평가들의 등장은 문단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어려워졌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세대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편집위원이라는 지위 꼭대기 위치한 비평가들은 개성있는 비평 언어를 구사하며, 그들이 신진 비평가라고 하더라도 편집위원 위치에 있다면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VI. 결론 및 토론

1995년부터 2015년까지 3대 문예지 비평 텍스트 전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⁶³⁾.

문예지의 비평은 평균적으로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동을 기준으로 새로운 담론을 생산해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문학계에 어떤 다른 문학적 전망 혹은 현실에 대한 이해를 유도했는가는 또 다른 연구 질문이 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제 사회적, 문화적 변동이 일어났다면 그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1997-8년 사이에 유일한 변화를 보였던 ‘창비’의 독자성에

63) 다만 개념단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주요 개념단어에 있는 풍부한 맥락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했다. 이는 주요 개념단어를 둘러싼 공기어(共起語) 네트워크 확인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문예지별 공기어 네트워크, 개성도가 뚜렷한 비평가들이 사용한 공기어 네트워크 비교분석을 통해 개념단어의 의미론적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김대중 정부의 출범기와 겹치지만 동시에 IMF 사태라는 사회경제적 급변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창비’는 다른 문예지에 비해 ‘정치경제학적’ 감수성이 훨씬 두드러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비평 내용상의 이 같은 시대적-역사적 전환들에도 불구하고, 비평가의 창의성과 개성도를 둘러싼 사회적 위계 메커니즘은 전 시기를 거쳐 동일하게 나타났다. 문단에서의 높은 사회적 지위(등단 이력, 나이, 편집위원 역임 여부)는 비평 언어의 개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배이자 경력이 짧은 평론가들이 주된 논의의 축에서 끼리끼리 모여 있다는 것, 이들 가운데 편집위원직함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것은 문학 외적 이유로 자신만의 개성있는 담론을 당당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젊은 비평가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한국 현대문학의 미래가 자유로운 개인에 있다고 하면서, 개인과 규범 중 개인을 선택하자고 했던 젊은 김현의 진단이 50년 전이다. 우리는 한국 문학계에 자유로운 개인들이 출현하기를 더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론이 단순히 문학에는 낯선 전산학-사회과학적 기법을 적용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바란다. 김현이 인용한 레비스트로스의 “과학적 설명”은,⁶⁴⁾ 기존 이론이란 편의에 따른 단순 가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유효 이론 (effective theory)”에 불과하다는 현대 물리학의 관점과 다르지 않다.⁶⁵⁾ 이는 현대물리학이 현실을 파악할 때 가지는 난점들, 즉 좀 더 복잡한 쿼텀물리학을 상대적으로 단순한 고전

64) “과학적 설명은 복잡한 데서 단순한 대로의 통과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지적인 복잡성에 의해 덜 지적인 만 복잡성을 대치하는 데에 있다” 김현, 위의 글, 1967, 247쪽.

65) Hawking, Stephen, and Leonard Mlodinow, *The grand design*, New York: Bantam Books, 2010.

물리학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때 발생하는 난제와 문학연구가 문학의 좀 더 객관적인 현실 (reality)을 이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가리킨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의 문학 연구가 전산학-사회과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더 지적인 복잡성”의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 감미아, 송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신문사에 따른 내용 및 논조 차이점 분석」, 『지능정보연구』, 18.3, 2012.9
- 김도연 외 4인, 「한국문단의 구조를 다시 생각한다.」 『문학동네』 2015년 가을호, 2015
- 김대성, 「한국문학의 ‘주니어 시스템’을 넘어」, 『창작과비평』, 2015년 가을호
- 김성환,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2010.4
- 김현, 「논문 통제와 일탈 - 미셀푸코의 문학비평」, 『사회비평』 1, 1988
- 김현, 「푸코의 시대구분에 대하여-단절, 비연속, 연속에 대하여」, 『외국문학』 21, 1989
- 남진우, 「원초적 장면의 변용으로서의 소설 - 김애란 소설의 밀그림」, 『문학동네』 2007년 여름호
- 류보선, 「침묵하는 주체, 말하는 시체」, 『문학동네』 2005년 겨울호
- 문학동네 편집부, 「계간 『문학동네』를 창간하며」, 『문학동네』, 1994 겨울호
- 문한별, 김일환, 「김남천 소설의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2011.12
- 방재석, 「문예지에 대한 문학 작가의 인식과 정책적 대안」, 『문화정책논총』, 2012.08
- 송은영, 「『문학과지성』의 초기 행보와 민족주의 비판」, 『상허학보』, 43, 2015.02
- 윤지관, 「공론의 장인가 권력인가-90년대 문학계간지들에 대한 단상」, 사회비평, 1999
- 이재연, 「작가, 매체, 네트워크-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시론」, 『사이間 SAI』, 17, 2014
- 이재연, 「키워드와 네트워크 : 토픽 모델링으로 본 『개벽』의 주제 지도 분석」, 『상허학보』, 46, 2016.02
- 이황직, 「정신사와 문학사회학: 백석의 시에 대한 정신사적 분석」, 『문화와 사회』 17, 2014
- 임영봉, 「한국문학의 제도성에 대한 비평의 성찰」, 『오늘의 문예비평』, 2005.6
- 정수복, 「뤼시앙 골드만의 문학 사회학의 불연속성」, 『현상과인식』 5(1), 1981
- 현택수, 「일반논문 골드만의 소설사회학을 위한 변명: 이해와 오해의 차이」, 『사회비평』 19, 1999
- 황호덕, 「외부로부터의 격발들, 고유한 연구의 지정학에 대하여」, 『상허학보』, 35,

2012.06

Koselleck, Reinhart, 한철 옮김,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1998

Goldmann, Lucien. "The Concept of the Significant Structure in the History of Culture.". *Essays on method in the sociology of literature*. St. Louis: Telos Press, 1980.

Hawking, Stephen, and Leonard Mlodinow. *The grand design*. New York: Bantam Books, 2010

Rule, Alix, Jean-Philippe Cointet, and Peter S. Bearman. "Lexical shifts, substantive changes, and continuity in State of the Union discourse, 1790-2014,"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2,35, 2015

비평 언어의 변동: 문예지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단어의 변동 양상, 1995~2015

김병준, 전봉관, 이원재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3대 문예지(『창작과비평』, 『문학동네』, 『문학과사회』)에 게재된 문학 비평 텍스트 3,057편을 바탕으로 21년간의 비평 언어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TF-IDF 가중치를 활용하여 비평 언어에서 주요한 상위 500개의 개념단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문예지별, 시기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예지는 대통령 선거라는 사회정치적 변동기를 전후하여 개념 단어의 사용 양상이 변화하였다. 각 문예지들의 심미적, 이념적 지향점 차이를 개념단어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요 개념단어를 매개로한 비평가들의 지형도를 분석한 결과, 비평가의 사회적 지위가 개념 단어 사용에 기반한 비평 텍스트의 개성도에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비평 언어, 개념단어, TF-IDF, 코사인 유사도, 주성분 분석

The Shifting Aspects of Concept Words Shown in Criticism in Literature Magazines, 1995~2015

Kim, Byung-jun · Jun, Bong-gwan · Lee, Won-jae

This study analyzes the shifting aspects of critical language according to 3,057 criticism texts in three literature magazines (Ch"angjakkwapip'yong, Munhaktongne, and Munhakkwasahoe) from 1995 to 2015. Except stopwords, concept words which includes ideological and rhetorical character are selected. With TF-IDF weight, the top-major 500 concept words are extracted from criticism texts, which leads to execute analysis by literature magazines and time. The aspects of concept words in each magazine change around social transition such as presidential election. Moreover, aesthetic and ideological point of view in each magazine is found again through concept words. Finally, after analyzing social geography meditated by major concept words, social status of critic affects uniqueness of criticism texts.

Key-words : Critical language, Concept word, TF-IDF, Cosine similarity,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이 논문은 2016년 12월 30일에 접수되었으며,
2017년 1월 19일에 심사를 거쳐 2017년 1월 3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